

갯스윌연합교회 제7대 강현규 담임목사 취임

갯스윌연합교회(God's Will Alliance Church)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를 알리는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서 지난 20년간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이희철 목사의 40여년 목회여정을 기리고, 제7대 담임으로 부임한 강현규 목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C&MA 한인총회 감독 정재호 목사는 마태복음 3장 16-17절을 본문으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영적 계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재호 감독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목회와 사역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철저히 성령의 능력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새로운 리더십과 갯스윌연합교회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받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어 "오직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덧입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목회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도전했다.



갯스윌연합교회가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기독일보

원로목사 추대식에서는 1984년 목사 안수 이후 40여 년간 복음을 위해 달려온 이희철 목사의 사역을 회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005년 부임해 2025년까지 20년간 갯스윌연합교회를 섬긴 이희철 목사는 담사를 통해, "지난 40년의 목회 여정, 특히 이곳에서의 20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도들의 사랑 덕분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제 강현규 목사님 깃발을 중심으로 더욱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되라. 기도로써 후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재호 목사가 총회를 대표해 이 목사에게 추대패를, 교회를 대표해 송복섭 장로가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제7대 강현

규 담임목사는 취임 서약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본받아 신성한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다"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 무리의 본이 되며,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성도들 또한 강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알고 순종하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 정재

호 목사가 총회를 대표해 강현규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했다.

강현규 목사는 한신대 신학대학원(M.Div)과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D.Min) 과정을 마쳤다. 나성동산교회 찬양목사, 좋은친구들교회 담임 등을 역임 미주기독교방송 뉴스 진행 아나운서 및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 사업본부장직, 주님미디어 대표로 섬겼다.

이날 예식은 김영호 목사(LA 소망교회)의 예배 인도 후, 이창남 목사(주님의 손길교회)의 인도로 추대식이 진행됐다. 갯스윌 20년 회고 영상 상영, 안나선교회의 꽃다발 증정, 축하와 권면이 이어졌다. 고주열 목사(LA 비전교회)의 인도로 최병수 목사(인랜드지역 은목회 회장)가 축사를, 강요섭 목사(러시아 선교사, 말라위대학 종교학교수)와 김희수 목사(샌디에고 베델교회 원로)가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앞날을 축복했다. 남가주한신동문 목회자회와 소프라노 김미진 등의 축하후에 강현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조셉 리 기자 주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美 최대 민간재단 릴리 엔다우먼트, 신학교 · 종교기관에 8천 7백억 지원

종교기관 93개에 총 6억 4,900만 달러 보조금 지원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재단인 릴리 엔다우먼트(Lilly Endowment)가 약 1,020억 달러의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목회자 양성과 기독교 신앙 이야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93개 종교기관에 총 6억4,900만 달러(약 8,7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지원 중 4억1,600만 달러 이상은 2021년 시작된 '파스웨이즈

포 투모로우(Pathways for Tomorrow)'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캐나다의 45개 신학교에 전달됐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와 미래의 교회를 섬길 목회 지도자 양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신학대학원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크리스토퍼 L. 코블 릴리 엔다우먼트 종교부 부회장은 성명에서 "신학대학원은 교회의 목회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학교 간, 그리고 교회·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이야말로 신학교들이 사명을 강화하고 장기적 영향력

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2021년 이후 신학대학원 163곳에 총 7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그중 61개 학교는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보조금은 250만~1,000만 달러 사이로 책정됐다. 가장 높은 1,000만 달러를 받은 학교는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다음과 같다. 오스틴장로교신학교, 바이올라대학교, 베서니신학교, 백

슬리시버리신학교, 캠퐁대학교, 콘코디아신학교, 이튼신학교, 에모리대학교, 풀러신학교, 개척복음주의신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하워드대, 인디애나웨슬리언대, 카이로스대학 내 북미침례신학교, 로고스신학교, 로올라대 시카고, 루터신학교, 마운트앤젤 수도원, 뉴브런즈윅신학교, 태평양장로교대, 팜비치에틀랜틱대, 로버트웨슬리언대, 세인트존스대, 산타클라라대, 사우스이스턴대, 유니언장로교신학교, 웨슬리 성경신학교 등이다.

이미경 기자 → 1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 상업을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현)남가주 교외협회와 고문 변호사
(현)제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올림픽장로교회, ‘금메달 교회’ 향한 도약

올림픽장로교회,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 성료

올림픽장로교회(이수호 목사)는 지난 11월 30일(주일) 오후 4시, ‘2025년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추수감사절 기간에 열린 이날 예배는 평생을 헌신한 일꾼들의 명예로운 은퇴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임직자들의 결단이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북미주 개혁주의 교단(KAPC) 한미노회 서기 서오석 목사의 대표 기도로 문을 열었다. 서 목사는 “광야 같은 이민 사회에서 올림픽장로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임직자들이 아론과 훌처럼 담임목사를 돕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설교 “순교 vs 허망한 죽음”

이수호 목사는 사도행전 6장 1-6절을 본문으로 ‘순교 vs 허망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삶의 목적에 따라 ‘허망한 죽음’이 될 수도, ‘순교’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직분자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대교회는 구체 문제로 인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라는 위기를 맞았으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오히려 부흥의 계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는 훌륭하다’에 나온 사나운 개 ‘동경이’와 그를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일화를 예화로 들며 “직분자는 때로 성도들에게 물리거나 상처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물려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직분자의 자세”라고 역설했다.

아름다운 은퇴와 새로운 출발

2부 은퇴 예식에서는 2016년부터 시무장으로 헌신해 온 강이훈, 김인규, 전수일 장로가 은퇴했다. 성도들은 그동안 교회의 기둥으로 헌신한 세 장로에게 뜨거운 박수와



올림픽장로교회 ‘2025년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

감사패를 전했다.

이어 3부 임직 예식에서는 김제철 안수집사가 온 성도의 지지 속에 명예장로로 추대되었으며, 음인정, 정세용 안수집사가 시무장으로 장립되었다. 또한, 교회 내에서 간사로 사역하며 신학 수업을 마친 여세원 간사가 전도사로 임명됐다.

권면과 축사 “검손과 연합으로 금메달 교회 되길”

문상면 목사(생명샘교회 원로)는 권면을 통해 “올림픽장로교회는 1대 정양수 목사님에서 2대 이수호 목사님으로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진 모범적인 교회”라며 “은퇴하시는 분들은 금메달, 임직받는 분들

은 앞으로 금메달을 딸 분들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검손’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부환 목사(한마음제자교회)는 축사에서 “죽어지는 길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겠다고 나선 용기를 축하한다”며 “특히 전도사 임명식을 거행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드문 귀한 일로, 성도들의 큰 격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은퇴자를 대표해 답사에 나선 강이훈 장로는 “시무장로의 직분은 내려놓지만, 성도로서 새로운 꿈을 꾸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겠다”고 전했다. 임직자 대표 정세용 장로는 “거룩한 책임감을 느낀다. 항상 겸손히 순종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섬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김선찬 장로의 광고 후, 정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 원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조셉 리 기자

“선교사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추수감사”

선테모는 2017년부터 매해 추수감사절과 연말이면 선교사 가족들을 초청해 따뜻한 식탁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11월 말 선교사가 정들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때 LA 지역 교회들에는 추수감사절에 선교사 가족을 초청해 격려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모임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의 초청 모임은 선교사들에게 귀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모임에는 총 15가정, 40여 명의 선교사와 자녀들이 함께했다. 선교지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해온 이들의 얼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사 가족들을 초청해 따뜻한 식탁 교제의 시간을 나눴다.

평안과 격려가 깊이 담겨 있었다.

특히 올해 모임은 풀러신학교 동문이신 원영호 목사의 꾸준한 후

원과 따뜻한 섬김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원 목사는 단발성이 아닌, 해마다 이 초청 모임을 위해 기

도와 재정으로 힘있게 뒷받침해 왔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선교사들을 위해 기꺼이 후원했다. 또한 사모들과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이 담긴 넉넉한 용돈을 직접 준비해 나누며, 선교사 가정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전했다.

신춘식 선교사는 이날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신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을 선물로 전하며, “원영호 목사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 덕분에 많은 선교사가 정이 매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모임 동안 선교사들은 잠시 선교지의 무거운 현실을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누르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놀며 풍성한 교제를 나눴다. 선교사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선테모는 신 선교사가 2017년부터 풀러에 안식년으로 오신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테니스를 통해 회복과 힐링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모임으로, 현재는 선교사 가족을 섬기는 멤버케어 사역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신 선교사는 GMS 미국서부지부 지부장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며,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전 미주장신대) 선교학과 박사원 교수로 섬기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이튼 산불 아픔 딛고 희망의 빛 전다

화마가 휩쓸고 간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굳건한 회복을 알리는 희망의 불빛이 켜진다.

오는 12월 6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알타데나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Annual Lighting Ceremony)과 윈터페스트가 열린다. 올해 행사는 여느 해와 달리 지역 사회에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 1월 ‘이튼 산불(Eaton Fire)’로 인해 지역 전체가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

에 대해 “단순히 연말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하고 성찰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모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점등식은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주민들의 강인함을 기리고, 이웃 간의 지지를 확인하며 따뜻함과 기쁨으로 연말 시즌을 시작하는 치유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 당일, ‘윈터페스트(Winterfest)’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

되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점등식은 오후 6시 진행된다.

2025 성탄 트리 점등식

일시: 12월 6일 (토)

위치: 알타데나, 산타 로사 애비뉴와 마리포사 스트리트 교차로 (E Mariposa St. & Santa Rosa Ave, Altadena, CA 91001)

윈터페스트: 오후 3시- 9시

점등식: 오후 6시

의미: 이튼 산불 이후 지역 사회의 회복과 단결 도모

인랜드 한인 교회 연합 성탄 찬양제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는 12월 13일(토) 오후 4시, 성탄 찬양제를 재개하여 개최한다. 이번 성탄 찬양제를 통해 인랜드 지역 한인 교회들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리게 된다. 협의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성계 목사(남가주헬로십교회)/ 총무: 장수영 목사(언약교회)/ 회계: 김상욱 목사(미주세한교회)/ 고문: 윤창률 목사(인랜드 온누리교회)

이번 행사는 갯스윌교회(강현규

목사)에서 열리며, 각 지역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이 참여하여 성탄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드러내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시: 12월 13일(토) 오후 4시

장소: 갯스윌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전화: 909-983-0994

이용규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Faith Theological Seminary
종교교육학 박사



60여년 목회, 2016년 소천
(LA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 시무)

강해설교집 목록

- | | |
|-------------------|--------------------|
| 제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
| 제2권 아가서 강해 | 제23권 선한목자와양 |
|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
|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 제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
| 제5권 씩지않는 면류관 |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
| 제6권 스가서 강해설교 |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
|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 제28권 시온으로가는 큰 길 |
|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
| 제9권 롯기서 강해 | 제30권 백합방은 백성의 축복 |
| 제10권 새천년에 할 일 |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
|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 제32권 간추린 신학 |
|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
|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 제34권 위대한 사랑 |
|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 제35권 대살로니가전후서 강해 |
|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 제36권 큰 산아 평지가 되라 |
| 제16권 진정한 평화 | 제37권 경건한 신앙생활 |
|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
| 제18권 십자가의 도 |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
|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 제40권 갑절의 영감 |
| 제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
|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성경 강해 설교집

날권 혹은 전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제 37권에서 발췌

본문(Scripture)	누가복음(Luke) 2:8-14
제목(Topic)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Joy in the Good News)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 [The content of the great joy in the good news]

- | | | |
|-----|------------------------------------------------------------------------------------------------------------------------------------------------------------------------------------------------------------------------------------|--------------------------------------|
| (1) | 만민을 위해 구주가 나심
(Savior is born for all people)
(예수께서 구주가 되신 방법)
(Method of Jesus becoming the savior)
(A) 육신으로 세상에 오심
(Came to the world in flesh)
(B) 십자가에서 대속하심
(Became atonement on the cross) | 11 |
| (2) |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감
(Give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
(Method of giving Glory to God)
(A)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
(God's will was fulfilled)
(B) 자녀들이 영광을 돌림
(Descendants give glory) | 14상
갈(Gal) 4:4,5
고전(1Co) 10:31 |
| (3) |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심
(Became peace among the people)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방법)
(Method of becoming peace among the people)
(A)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림
(Enjoy true peace in the heart)
(B) 사람들과 평화를 누림
(Enjoy peace with other people) | 14하
요(Jn) 14:27
롬(Ro) 12:18 |

설교 본문: 누가복음 2:8~14

- 8)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 9) 주의 사자 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 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 13)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든지 무료로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LA 동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오]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설교집 신청

담당 :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ykleesermon@gmail.com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세미나가 11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달라스세미교회(이은상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에서 이미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대회 참석 경쟁이 치열한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가 처음으로 미주에서 열린 것으로, 캐나다·멕시코·파라과이 등 북미와 중남미 전역에서 총 33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월드사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월드사역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발견되는 건강한 교회의 다섯 가지 핵심 원리를 균형있게 정리한 사역 모델이다. 예배하는 교회(Worshiping Church), 소그룹 교회(Oikos Church), 돕는 교회(Reaching-out Church), 생명을 살리는 교회(Life-Giving Church), 제자를 세우는 교회(Discipling Church)라는 다섯 축을 중심으로 교회를 균형 있게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은 한국과 미주 지역의 여러 교회



월드사역 목회자세미나. ©월드사역연구소

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월드사역연구소 소장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주 지역 목회자들과 월드사역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달라스에서 세미한교회를 개척해 약 17년간 섬기며 월드사역의 열매를 경험한 그는 2018년 강남중앙침

례교회로 부임한 이후에도 동일한 열매를 목격해 왔으며,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세미한교회가 2019년 8월 4일 형제교회 협약식을 맺은 이

후 이어온 아름다운 협력 속에서 개최되었다. 세미한교회를 설립한 최병락 목사와 후임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은상 목사는 서로의 사역을 깊이 신뢰하며 건강한 동역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두 교회의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미주 교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월드사역연구소 미주소장 이은상 목사는 “미주 한인교회는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독특한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은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월드사역 세미나가 미주에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데 매우 필요한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월드사역의 핵심 철학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소그룹 토의·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건강한 교회 모델, 균형 잡힌 사역 시스템 구축, 실제 목회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나누며 큰 도전과 유익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첫 미주 개최임에도 뜨거운 참여와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향후 미주 지역에서 월드사역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준 기자

어노인팅교회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

영혼육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어노인팅 교회(라 크레스타 소제, 담임 신경섭 목사)는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를 오는 12월 13일(토)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보약의 왕이라고 불리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공진단을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로 성탄과 연말연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행사이다.

어노인팅 교회 관계자는 “평소 영육혼의 전인적 건강을 목표로 하는 저희 교회가 지난 10월 ‘마음 웰빙 몸 웰빙’ 토요 강좌에 이어 이번에는 신체 건강에 초점을 둔 월례 토요 모임입니다. 강사님이 원재료를 준비하시고 클래스 참가자 들은 반죽이 된 공진단을 동그랗게 빚고 금박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데 남녀노소 모두 가능했고 함께 작업하는 보람과 재미도 있었습니다. 성탄과 연말을 앞두고 선물 준비 차원에서 또, 자녀들 특히 손자손녀들이 함께 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초대 말씀을 전했다.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는 서민수 목사(방주교회, 풀러턴)가 개발한 것으로, 어노인팅교회 는 지역사회 섬김과 전도 사역의 하나로 개최하는 행사 이기에 참여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진단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재료 준비를 위해 신청 수량을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전화 224-622-9183, 이메일은 mcc3694@yahoo.com, 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예장 대신 서울동노회 제128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서울동노회(노회장 서사라 목사)는 제 128회 추계 정기노회 및 목사 임직식을 14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장 서사라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서울동노회를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지 않은 노회를 만들겠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임직자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의 진

리를 굳건히 지키며, 교회와 민족을 위해 충성할 것을 부탁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설교했다.

노회 및 임직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노회장 김창호 목사(대신노회)의 사회로 부서기 김희경 목사의 기도, 부회록서기 이화숙 목사의 성경봉독(요일 2:7-14), 서사라 목사의 ‘속히 아버가 될찌라’라는 제목의 설교, 서정경 목사(새소망교회)의

헌금기도, 증경노회장 강영철 목사이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이어서 열린 성찬식은 강영철 목사의 집례로 황도연 목사와 유신숙 목사가 성찬위원으로 진행했다. 지난 해에 이어 서사라 목사가 연임 노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김동철, 김은숙, 김희은, 노복순, 전임수, 정혜경, 정용산 등 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이용태 내과

한인사회의 봉사자로서 터를 닦아온
Dr. 이용태의 외길 인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종합검사
전문

MEDICARE
PPO

각종 일반 보험으로
치료합니다

하지정맥류
실핏줄 치료전문



한국종합의료원

YELLOW CROSS MEDICAL CLINIC, INC.

Tel. (323)731-0681 903 Crenshaw Blvd. #302., Los Angeles, CA 90019 leeyongtae@yahoo.com

미국 위장내과 간 전문의
미국 내과 전문의

원장 **이 용 태** 박사
Yong T. Lee M.D.

메디케어는 **역시!**

센터메디컬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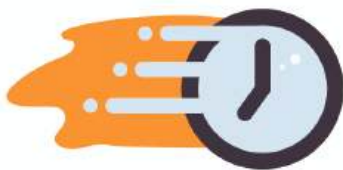
센터메디컬그룹에서만 가능한 혜택



FREE
RIDE

한인 기사 무료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가 편안히 택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택으로 무료로 모셔다드립니다.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발급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
절차로 당일 승인받아 바로 진료 가능합니다.



시니어 전문 의료 네트워크

2,500명이 넘는 시니어 진료로 특화된
우수한 실력의 의료진들이 언제나 대기합니다.



남가주 최다 입원치료 가능

미주 내 80개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문화 생활 혜택

독점적으로 각종 공연, 전시, 축제, 강연,
스포츠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교, 회중이 사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한양대 목회자영성세미나 열려... ‘영성과 설교의 본질 회복’ 강조

제8회 한양대학교 목회자영성세미나가 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ITBT관 7층 다솜채플에서 개막했다. 올해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세미나는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목회자·전도사·신학생·사모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한양대학교 교목실이 주관해 올해로 8회째인 세미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다시 세운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목회자세미나는 사흘 동안 다양한 강의를 이어졌다. 1일 첫 강의로는 ‘영성과 설교’(김기석)와 ‘개인과 공동체 영적 성숙의 상관관계’(유해룡), 2일에는 ‘영성과 성서’(차준희), ‘영성과 관상기도’(이민재), ‘영성과 기독교 역사’(배덕만), ‘영성과 찬송’(이천진), ‘영성과 목회’(한석문), 마지막날에는 ‘영성과 에니어그램’(최경원, 김태은, 박미례) 등이다. 참가자들은 조별 나눔과 토론을 통해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적용점을 모색했다. 김기석 목사(청파교회)는 세미나 첫 강의 ‘영성과 설교’에서 먼저 현대적 행복 공식을 짚었다. 그는 “욕망은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데서 출발하는 마음의 결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향유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소비사회의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과 감사’라며, 자기가 누리는 세상(햇빛, 물, 자



제8회 한양대 목회자영성세미나가 다솜채플에서 열렸다.

연, 동료, 친구)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자각하는 능력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뭔가를 바라보며 경탄하는 능력, 자기 삶이 은총임을 깨닫는 능력”이 무너질 때 인간은 빈곤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이야기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아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설교자가 해야 할 말”이라고 했다. 이어 김 목사는 설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으로 ‘사유하는 힘’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은 모호함을 싫어하고 정답을 원하는 경향이 커졌다. 사유하기 힘들어지는 시대일수록, 설교자는 사람을 단정 짓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

다”며 “젊은이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 중 하나도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 ‘즉답 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회중이 스스로 사유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인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이 시대에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칭하며, “회중이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설교자는 ‘세상의 맨 앞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그는 “설교란 ‘예수 안에서 발견한 진실을 찬양과 순종으로 풀어내고, 대안공동체를 길러내는 일’”이라고 정의한 월터 브

루그만을 인용하며, “예수는 사람들의 일상을 찬찬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거룩을 발견하게 하셨다. 당연한 것에 물음표를 붙이고 다시 보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어 “당연의 세계를 해체하고, 인간이 본래 지어진 방식대로 새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의 설교자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만한 말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회 내 정치적 해석과 이념적 갈등 때문에 “예언자처럼 말하면 쫓겨날 것 같은 시대”라는 고백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구 “Tell all the truth, but tell it slant”를 들며 “진실을 말하되,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람들 안에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언어로 비스듬히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첫날 개회예배는 오후 2시에 열렸다. 예배는 한양대학교 교목실장 이천진 목사의 인도로, 오르간 찬미의 연주, 김수지 솔리스트의 ‘여정’ 연주, 공동체 인사,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의 설교, 김진희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마태복음 2장 1-12절을 본문으로 ‘동방박사는 왜 길을 잃었나’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먼저 “기다림은 소중한 선물인데, 현대사회는 기다림의 가치를 빼앗아가고 있다. 조급함과 성급함이 깊은 연민과 공감을 잠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나섰다가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은 이유를 “그들의 통념이 시야를 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시아는 왕가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하늘의 빛이 사라지자 바로 옛 통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예수의 탄생은 통념을 해체하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마굿간이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새 현실을 여셨다”며, “믿음의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백선영 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은 무엇인가?”

한국현대예배학회(회장 가진수 교수)는 29일 남산교회(담임 이신사 목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주제로 제4회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학술행사는 예배 현장의 실제 문제와 현대 예배의 역사적·신학적 토대를 함께 조명했다. 예배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듀크신학교 예배학 레스터 루스 교수(Dr. Lester Ruth)는 현대 예배와 찬양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 강의를 전했다. 또한 양정식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에 대해, 학회 회장인 가진수 교수(미국 웨드미션대학교 예배학과)는 ‘하나님



제4회 한국현대예배학회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강연 현장 전경. © 한국현대예배학회

이 기뻐하시는 예배팀’에 대해 선택강연을 진행하며 찬양과 예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레스터 루스

교수는 ‘현대 예배와 찬양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현대 예배의 특징과 역사적 기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루스 교수는 현대 예배

(Contemporary Praise & Worship)의 핵심 특징을 △현대적이고 이해 가능한 언어 △음악 중심 구조 △열정·강렬함 등 감정의 중시 △신체적 표현과 비형식성 △기술(Technology) 활용도 증가 등으로 정리하며, “현대 예배는 음악적 흐름(flow)에 의해 구성되는 예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루스 교수는 시편 22편, 히브리서 13장 등 현대 예배 신학을 형성한 핵심 본문들을 제시하며, “성경 신학이 현대 예배의 구조와 내용 형성에 깊게 관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 예배에서 음악이 핵심이 된 이유를 △감정의 중요성 △대중음악의 자연스러운

수용 △오래 회중 찬양 세트의 등장 △기술 발전 △전문 예배 인도자의 증가 등으로 설명했다. 선택 강의에서 양정식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를 주제로 성가대의 본질과 실제적 역할을 설명했다. 양 교수는 성가대를 ‘예배자의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양 교수는 성가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네 가지 습관(10분 전 도착, 연습을 예배로 만들기, 가사 묵상, 무대 밖의 삶 강조)을 제시하며 실제적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백선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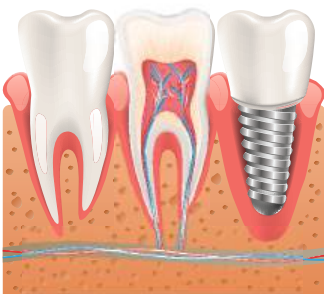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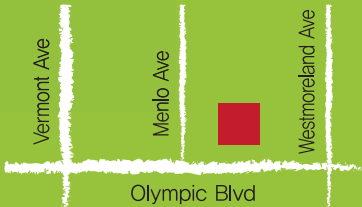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늘 [우]이
먼저였습니다

늘 [우]가 먼저였습니다.
엘에이, 뉴욕, 시애틀, 하와이, 애틀랜타,
우리가 있는 곳이면
늘 한인사회를 먼저 생각했던 당신,
이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무장단체 공격에 '포위' 당해"

세계기독연대(CWS)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회장은 "나이지리아에서 정부가 수많은 무장단체,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 데도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포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의 발언은 최근 풀라니 민병대에 납치됐던 그리스도사도교회 신자 38명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드물게 들려 온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하다. 나이지리아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살해되거나 납치되는 국가로 꼽힌다.

일부 납치 피해자는 석방되거나 탈출에 성공하지만, 상당수는 수년간 포로 상태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치북에서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됐던 여학생 276명 중 많은 이들이 탈출하거나 협상을 통해 석방됐으나, 약 90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전문가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 ©Aid to the Church in Need 제공

은 이들이 강제 결혼을 당하거나, 노예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근 공격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주 3일 동안 세 건의 별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니제르주 파피리 지구의 세인트메리가톨릭고등학교에서는 300명 이상의 학생

과 교직원이 집단 납치됐다. 이 중 50명이 탈출했지만 최소 265명이 여전히 억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이 점점 더 조직화·대규모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기독교 축제 기간에 학살과 납치가

'관례'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윌프레드 아나그베 주교는 "기독교 축제 기간의 학살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하나의 관습처럼 자리잡았다"고, 존 바케니 주교는 최근 폭력이 "집단학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하며, 정부가 테러와 종교적 박해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머빈 토마스 회장 역시 "나이지리아 민간인들은 여러 무장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점점 더 포위되고 있다"며 "이 전례 없는 불안 증가는 샤리아 국가에서 계속되는 종교 차별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 언론이 종교적 요소를 축소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현장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이지리아가 CPC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교 관련 위기를 해결하며, 가해자와 후원자를 책임지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미셀 기자

中 장 샤오지에 목사, 12년 형기 마치고 석방돼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 “외부 방문객 접견 금지 조치 우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Martyrs Korea, 이하 한국 VOM)는 중국 허난성 난러현에서 목회하던 장 샤오지에(Zhang Shaojie) 목사가 12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11월 16일 석방돼 경찰 호송을 받으며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삼자 애국 교회 위원회' 난러현 지부 전의장으로, 2013년 지방 정부와의 토지 분쟁을 이유로 체포된 뒤 '공공질서 방해를 위한 군중 소집'과 '사기' 혐의가 추가되며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한국VOM은 장 목사가 수감 중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편지를 통해 지속적인 격려를 받도록 캠페인을 주관해 왔다. 장 목사는 성명에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에 감옥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라며 “성령의 임재를 매일 체험했고, 국제사회의 도움과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없었을 수도 있고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Hyunsook Foley) 대표는 장 목사의 석방을 환

영하면서도, 중국 당국이 그의 집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 방문객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장 목사는 1990년대부터 난러 지역에서 목회를 해왔으며, 교회가 공산당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일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여러 교도소로 이감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가족과의 소통과 면회가 제한된 채 가혹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1월, 교도소 측이 장 목사에게 흰색 알약을 매일 복용하게 했다는 사실이 딸을 통해 폭로되면서 우려가 커졌다. 당시 교도소 의사는 이를 고혈압 약이라고 주장했으나, 가족들은 복용을 만류했다. 이후 면회를 통해 가족들은 장 목사가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성격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폴리 대표는 전했다.

그녀는 “믿음 때문에 수감된 성도는 감옥에 있을 때보다 석방된 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며 장 목사가 안면 인식 카메라와 외부 접견 금지 조치로 인해 지속적인 트라

우마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장 목사와 가족들이 주님의 위로와 강하고 안전한 임재를 체험하고, 앞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폴리 대표는 신앙 때문에 수감된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 사역이 기독교인들에게 종종 소홀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장 목사님 같은 수감자에게 격려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편지가 차단되거나 더 큰 고통을 야기할까 걱정하지만, 한국VOM 웹사이트에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교도소 수감자 명단이 게시돼 있다. 간단한 기독교적 격려 편지는 수감자나 작성자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에 수감됐던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보내 온 편지가 수감 생활에 큰 위로와 소망을 줬다고 자주 이야기한다”며 “기독교인들이 이 사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혜진 기자

12년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장 목사가 84세의 노모와 포옹하고 있다.



SAINT MISSION UNIVERSITY 한글학부 개설 교수 모집 공고

Saint Mission University(SMU)는 캘리포니아주 교육국(BPPE)에 등록된 면제대학(Exempt School)으로 미국대학 정규학위(학사, 석사, 박사, 명예박사)를 수여하는 대학입니다. 한글 세계화와 한국어 유엔 공용어를 위하여 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한글학부를 개설하게 되어 축하와 함께 교수를 모집 공고합니다. 세인트미션대학교는 통신 온라인 대학으로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교수 모집 안내

- 교수 자격:** 1) 한글세계화 관련 교육 학위 유자격자
2) 교육학위 유자격 분야: 한글, 문화예술, 무용, 음악, 미술, 경제 체육 등 교육 전분야
3) 구비서류 및 접수: 사진과 프로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4) 문의 및 접수: 이메일 문의 및 접수 kafusa21@gmail.com

※ 단기 수료과정 한글 세계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교수 모집

Tel. (213)477-0077 | Fax. (213)788-4885



(213)276-6692



www.saintmu.us

Saint Mission University 총장 박상원 박사



나이지리아 대통령, 전국적 납치 급증 속 국가 비상사태 선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잇따른 대규모 납치와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고 최근 보도했다. 최근 3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꺼번에 납치된 사건과 성직자가 납치 중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자, 볼라 아메드 티누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티누부 대통령은 이번 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존에 승인된 3만 명 외에 경찰관 2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특히 무장 폭력이 집중된 지역에 신속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영국 기반 기독교 인권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에 따르면 대통령은 또한 국영 산림경비대 채용을 승인하고, 각 주에서 운영 중인 지역 보안조직에도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VIP 경호에 배치돼 있던 경찰 병력을 전면 철수해 본래 치안 임무로 재배치하라고 명령했으며, 전국적으로 방목형 소 사육(오픈 그레이징)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무기를 소지한 목동 세력들에게 즉각적인 무기 반납도 요구했다.

이어 종교 시설에는 보안 강화 요청이 내려졌고, 각 주에는 기숙학교를 외딴 지역에 배치하지 말라는 지침이 전달됐다.

한편,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해 온 성공회 성직자 에드윈 아치(Rev. Edwin Achi)가 납치 한 달 만에 사망한 사실이 수요일 확인됐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이하 현지시간) 카두나주 니시 지역 자택에서 아내 사라 아치와 함께 무장 괴한에게 납치됐다.

나이지리아 성공회는 성명을 통해 그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며 “그의 헌신적 사역을 기억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라는 현재까지도 감금된 상태이며, 부부의 딸도 함께 납치됐으나 최근 공개된 생존 증명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 조직은 아직 부부의 석방 조건으로 6억 나이라(약 41만 5천 달러)의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닝스타뉴스(Morning Star News)는 관련 사진이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

온라인에 유포된 직후 아치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의회에서 벌어진 치열한 논쟁 직후 나온 조치다.

상원의원들은 연이어 발생한 납치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가해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제안했다.

또한 치안 부대 장비 부족, 정보력 부재, 군경 조직 내부 침투 의혹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전 하원의 부의장 이드리스 와세(Idris Wase) 의원은 북중부 지역이 나이지리아 전체 폭력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보코하람(Boko Haram)과 범죄조직 관련자들이 군·경 채용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회 토론에서 언급된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지난 11월 21일 니제르주 파피리 지역의 세인트메리스 가톨릭 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한 303명 학생과 교사 12명 납치 사건이다.

대부분이 9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 학생들이었으며, 무장 괴한들은 새벽 기숙사로 난입해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CSW에 따르면 현재 253명의 학생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대량 납치 사건 직후, 피랍된 세 자녀를 둔 한 아버지 앤서니 무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역사회에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

최승연 기자

스리랑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최소 수백명 사망...전국 비상 대응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해 스리랑카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 Youtube Screenshot / France 24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스리랑카 전역에 사이클론 디트와(Ditwah)가 몰고 온 폭우와 산사태, 대규모 침수로 사실상 마비되며 사망자는 이미 3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와 고립된 주민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사이클론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주택과 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국가 전체가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CDI는 이번 사이클론이 최근 수십 년 사이 스리랑카를 강타한 기상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는 지금까지 2만 채 이상의 주택이 완전히 붕괴됐고, 10만 명 이상이 정부가 운영하는 대피소에 피신했다고 밝혔다.

전력망은 곳곳에서 끊겼고 수도물 공급도 멈춰, 전국의 3분의 1가량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잃은 상태다.

당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여러 지역은 여전히 고립돼 있으며 생존자 구조가 늦어지는 곳도 많다.

특히 강 수위가 계속 상승한 켈라니강 일대는 추가 범람 위험이 커 대피령이

유지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평생 이런 홍수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도로가 휩쓸리고 다리가 붕괴되면서 구조 인력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런 최악의 재난 상황 속에서 스리랑카 국가복음주의연합(NCEASL)은 “교회와 기독교 사역자들도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긴급 구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러 지역의 교회는 예배당이 침수되거나 파손돼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되었고, 성도들은 각자 대피소로 흩어져 공동체 자체가 일시적으로 해체된 상태라고 전했다.

NCEASL은 성명을 통해 “사이클론 디트와는 스리랑카 전역의 공동체를 무너뜨렸다.

수많은 가정의 삶의 기반을 잃었고, 목회자와 사역자들도 생계와 사역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NCEASL은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목회자·선교사·교회 사역자 500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식량·건조 식품·위생용품 등을 포함한 LKR 30,000(약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 꾸러미를 배포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에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내세대에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에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에배 1부 오전 8:15
주일에배 2부 오전 9:50
주일에배 3부 오전 11:30
주일에배 4부 오후 2:00
주일에배 5부 오후 7:30
주일에배 6부 오후 9:00
주일에배 7부 오후 10:30
주일에배 8부 오후 11:00
주일에배 9부 오후 11:30
주일에배 10부 오후 12:00
주일에배 11부 오후 12:30
주일에배 12부 오후 1:00
주일에배 13부 오후 1:30
주일에배 14부 오후 2:00
주일에배 15부 오후 2:30
주일에배 16부 오후 3:00
주일에배 17부 오후 3:30
주일에배 18부 오후 4:00
주일에배 19부 오후 4:30
주일에배 20부 오후 5:00
주일에배 21부 오후 5:30
주일에배 22부 오후 6:00
주일에배 23부 오후 6:30
주일에배 24부 오후 7:00
주일에배 25부 오후 7:30
주일에배 26부 오후 8:00
주일에배 27부 오후 8:30
주일에배 28부 오후 9:00
주일에배 29부 오후 9:30
주일에배 30부 오후 10:00
주일에배 31부 오후 10:30
주일에배 32부 오후 11:00
주일에배 33부 오후 11:30
주일에배 34부 오후 12:00
주일에배 35부 오후 12:30
주일에배 36부 오후 1:00
주일에배 37부 오후 1:30
주일에배 38부 오후 2:00
주일에배 39부 오후 2:30
주일에배 40부 오후 3:00
주일에배 41부 오후 3:30
주일에배 42부 오후 4:00
주일에배 43부 오후 4:30
주일에배 44부 오후 5:00
주일에배 45부 오후 5:30
주일에배 46부 오후 6:00
주일에배 47부 오후 6:30
주일에배 48부 오후 7:00
주일에배 49부 오후 7:30
주일에배 50부 오후 8:00
주일에배 51부 오후 8:30
주일에배 52부 오후 9:00
주일에배 53부 오후 9:30
주일에배 54부 오후 10:00
주일에배 55부 오후 10:30
주일에배 56부 오후 11:00
주일에배 57부 오후 11:30
주일에배 58부 오후 12:00
주일에배 59부 오후 12:30
주일에배 60부 오후 1:00
주일에배 61부 오후 1:30
주일에배 62부 오후 2:00
주일에배 63부 오후 2:30
주일에배 64부 오후 3:00
주일에배 65부 오후 3:30
주일에배 66부 오후 4:00
주일에배 67부 오후 4:30
주일에배 68부 오후 5:00
주일에배 69부 오후 5:30
주일에배 70부 오후 6:00
주일에배 71부 오후 6:30
주일에배 72부 오후 7:00
주일에배 73부 오후 7:30
주일에배 74부 오후 8:00
주일에배 75부 오후 8:30
주일에배 76부 오후 9:00
주일에배 77부 오후 9:30
주일에배 78부 오후 10:00
주일에배 79부 오후 10:30
주일에배 80부 오후 11:00
주일에배 81부 오후 11:30
주일에배 82부 오후 12:00
주일에배 83부 오후 12:30
주일에배 84부 오후 1:00
주일에배 85부 오후 1:30
주일에배 86부 오후 2:00
주일에배 87부 오후 2:30
주일에배 88부 오후 3:00
주일에배 89부 오후 3:30
주일에배 90부 오후 4:00
주일에배 91부 오후 4:30
주일에배 92부 오후 5:00
주일에배 93부 오후 5:30
주일에배 94부 오후 6:00
주일에배 95부 오후 6:30
주일에배 96부 오후 7:00
주일에배 97부 오후 7:30
주일에배 98부 오후 8:00
주일에배 99부 오후 8:30
주일에배 100부 오후 9:00
주일에배 101부 오후 9:30
주일에배 102부 오후 10:00
주일에배 103부 오후 10:30
주일에배 104부 오후 11:00
주일에배 105부 오후 11:30
주일에배 106부 오후 12:00
주일에배 107부 오후 12:30
주일에배 108부 오후 1:00
주일에배 109부 오후 1:30
주일에배 110부 오후 2:00
주일에배 111부 오후 2:30
주일에배 112부 오후 3:00
주일에배 113부 오후 3:30
주일에배 114부 오후 4:00
주일에배 115부 오후 4:30
주일에배 116부 오후 5:00
주일에배 117부 오후 5:30
주일에배 118부 오후 6:00
주일에배 119부 오후 6:30
주일에배 120부 오후 7:00
주일에배 121부 오후 7:30
주일에배 122부 오후 8:00
주일에배 123부 오후 8:30
주일에배 124부 오후 9:00
주일에배 125부 오후 9:30
주일에배 126부 오후 10:00
주일에배 127부 오후 10:30
주일에배 128부 오후 11:00
주일에배 129부 오후 11:30
주일에배 130부 오후 12:00
주일에배 131부 오후 12:30
주일에배 132부 오후 1:00
주일에배 133부 오후 1:30
주일에배 134부 오후 2:00
주일에배 135부 오후 2:30
주일에배 136부 오후 3:00
주일에배 137부 오후 3:30
주일에배 138부 오후 4:00
주일에배 139부 오후 4:30
주일에배 140부 오후 5:00
주일에배 141부 오후 5:30
주일에배 142부 오후 6:00
주일에배 143부 오후 6:30
주일에배 144부 오후 7:00
주일에배 145부 오후 7:30
주일에배 146부 오후 8:00
주일에배 147부 오후 8:30
주일에배 148부 오후 9:00
주일에배 149부 오후 9:30
주일에배 150부 오후 10:00
주일에배 151부 오후 10:30
주일에배 152부 오후 11:00
주일에배 153부 오후 11:30
주일에배 154부 오후 12:00
주일에배 155부 오후 12:30
주일에배 156부 오후 1:00
주일에배 157부 오후 1:30
주일에배 158부 오후 2:00
주일에배 159부 오후 2:30
주일에배 160부 오후 3:00
주일에배 161부 오후 3:30
주일에배 162부 오후 4:00
주일에배 163부 오후 4:30
주일에배 164부 오후 5:00
주일에배 165부 오후 5:30
주일에배 166부 오후 6:00
주일에배 167부 오후 6:30
주일에배 168부 오후 7:00
주일에배 169부 오후 7:30
주일에배 170부 오후 8:00
주일에배 171부 오후 8:30
주일에배 172부 오후 9:00
주일에배 173부 오후 9:30
주일에배 174부 오후 10:00
주일에배 175부 오후 10:30
주일에배 176부 오후 11:00
주일에배 177부 오후 11:30
주일에배 178부 오후 12:00
주일에배 179부 오후 12:30
주일에배 180부 오후 1:00
주일에배 181부 오후 1:30
주일에배 182부 오후 2:00
주일에배 183부 오후 2:30
주일에배 184부 오후 3:00
주일에배 185부 오후 3:30
주일에배 186부 오후 4:00
주일에배 187부 오후 4:30
주일에배 188부 오후 5:00
주일에배 189부 오후 5:30
주일에배 190부 오후 6:00
주일에배 191부 오후 6:30
주일에배 192부 오후 7:00
주일에배 193부 오후 7:30
주일에배 194부 오후 8:00
주일에배 195부 오후 8:30
주일에배 196부 오후 9:00
주일에배 197부 오후 9:30
주일에배 198부 오후 10:00
주일에배 199부 오후 10:30
주일에배 200부 오후 11:00
주일에배 201부 오후 11:30
주일에배 202부 오후 12:00
주일에배 203부 오후 12:30
주일에배 204부 오후 1:00
주일에배 205부 오후 1:30
주일에배 206부 오후 2:00
주일에배 207부 오후 2:30
주일에배 208부 오후 3:00
주일에배 209부 오후 3:30
주일에배 210부 오후 4:00
주일에배 211부 오후 4:30
주일에배 212부 오후 5:00
주일에배 213부 오후 5:30
주일에배 214부 오후 6:00
주일에배 215부 오후 6:30
주일에배 216부 오후 7:00
주일에배 217부 오후 7:30
주일에배 218부 오후 8:00
주일에배 219부 오후 8:30
주일에배 220부 오후 9:00
주일에배 221부 오후 9:30
주일에배 222부 오후 10:00
주일에배 223부 오후 10:30
주일에배 224부 오후 11:00
주일에배 225부 오후 11:30
주일에배 226부 오후 12:00
주일에배 227부 오후 12:30
주일에배 228부 오후 1:00
주일에배 229부 오후 1:30
주일에배 230부 오후 2:00
주일에배 231부 오후 2:30
주일에배 232부 오후 3:00
주일에배 233부 오후 3:30
주일에배 234부 오후 4:00
주일에배 235부 오후 4:30
주일에배 236부 오후 5:00
주일에배 237부 오후 5:30
주일에배 238부 오후 6:00
주일에배 239부 오후 6:30
주일에배 240부 오후 7:00
주일에배 241부 오후 7:30
주일에배 242부 오후 8:00
주일에배 243부 오후 8:30
주일에배 244부 오후 9:00
주일에배 245부 오후 9:30
주일에배 246부 오후 10:00
주일에배 247부 오후 10:30
주일에배 248부 오후 11:00
주일에배 249부 오후 11:30
주일에배 250부 오후 12:00
주일에배 251부 오후 12:30
주일에배 252부 오후 1:00
주일에배 253부 오후 1:30
주일에배 254부 오후 2:00
주일에배 255부 오후 2:30
주일에배 256부 오후 3:00
주일에배 257부 오후 3:30
주일에배 258부 오후 4:00
주일에배 259부 오후 4:30
주일에배 260부 오후 5:00
주일에배 261부 오후 5:30
주일에배 262부 오후 6:00
주일에배 263부 오후 6:30
주일에배 264부 오후 7:00
주일에배 265부 오후 7:30
주일에배 266부 오후 8:00
주일에배 267부 오후 8:30
주일에배 268부 오후 9:00
주일에배 269부 오후 9:30
주일에배 270부 오후 10:00
주일에배 271부 오후 10:30
주일에배 272부 오후 11:00
주일에배 273부 오후 11:30
주일에배 274부 오후 12:00
주일에배 275부 오후 12:30
주일에배 276부 오후 1:00
주일에배 277부 오후 1:30
주일에배 278부 오후 2:00
주일에배 279부 오후 2:30
주일에배 280부 오후 3:00
주일에배 281부 오후 3:30
주일에배 282부 오후 4:00
주일에배 283부 오후 4:30
주일에배 284부 오후 5:00
주일에배 285부 오후 5:30
주일에배 286부 오후 6:00
주일에배 287부 오후 6:30
주일에배 288부 오후 7:00
주일에배 289부 오후 7:30
주일에배 290부 오후 8:00
주일에배 291부 오후 8:30
주일에배 292부 오후 9:00
주일에배 293부 오후 9:30
주일에배 294부 오후 10:00
주일에배 295부 오후 10:30
주일에배 296부 오후 11:00
주일에배 297부 오후 11:30
주일에배 298부 오후 12:00
주일에배 299부 오후 12:30
주일에배 300부 오후 1:00
주일에배 301부 오후 1:30
주일에배 302부 오후 2:00
주일에배 303부 오후 2:30
주일에배 304부 오후 3:00
주일에배 305부 오후 3:30
주일에배 306부 오후 4:00
주일에배 307부 오후 4:30
주일에배 308부 오후 5:00
주일에배 309부 오후 5:30
주일에배 310부 오후 6:00
주일에배 311부 오후 6:30
주일에배 312부 오후 7:00
주일에배 313부 오후 7:30
주일에배 314부 오후 8:00
주일에배 315부 오후 8:30
주일에배 316부 오후 9:00
주일에배 317부 오후 9:30
주일에배 318부 오후 10:00
주일에배 319부 오후 10:30
주일에배 320부 오후 11:00
주일에배 321부 오후 11:30
주일에배 322부 오후 12:00
주일에배 323부 오후 12:30
주일에배 324부 오후 1:00
주일에배 325부 오후 1:30
주일에배 326부 오후 2:00
주일에배 327부 오후 2:30
주일에배 328부 오후 3:00
주일에배 329부 오후 3:30
주일에배 330부 오후 4:00
주일에배 331부 오후 4:30
주일에배 332부 오후 5:00
주일에배 333부 오후 5:30
주일에배 334부 오후 6:00
주일에배 335부 오후 6:30
주일에배 336부 오후 7:00
주일에배 337부 오후 7:30
주일에배 338부 오후 8:00
주일에배 339부 오후 8:30
주일에배 340부 오후 9:00
주일에배 341부 오후 9:30
주일에배 342부 오후 10:00
주일에배 343부 오후 10:30
주일에배 344부 오후 11:00
주일에배 345부 오후 11:30
주일에배 346부 오후 12:00
주일에배 347부 오후 12:30
주일에배 348부 오후 1:00
주일에배 349부 오후 1:30
주일에배 350부 오후 2:00
주일에배 351부 오후 2:30
주일에배 352부 오후 3:00
주일에배 353부 오후 3:30
주일에배 354부 오후 4:00
주일에배 355부 오후 4:30
주일에배 356부 오후 5:00
주일에배 357부 오후 5:30
주일에배 358부 오후 6:00
주일에배 359부 오후 6:30
주일에배 360부 오후 7:00
주일에배 361부 오후 7:30
주일에배 362부 오후 8:00
주일에배 363부 오후 8:30
주일에배 364부 오후 9:00
주일에배 365부 오후 9:30
주일에배 366부 오후 10:00
주일에배 367부 오후 10:30
주일에배 368부 오후 11:00
주일에배 369부 오후 11:30
주일에배 370부 오후 12:00
주일에배 371부 오후 12:30
주일에배 372부 오후 1:00
주일에배 373부 오후 1:30
주일에배 374부 오후 2:00
주일에배 375부 오후 2:30
주일에배 376부 오후 3:00
주일에배 377부 오후 3:30
주일에배 378부 오후 4:00
주일에배 379부 오후 4:30
주일에배 380부 오후 5:00
주일에배 381부 오후 5:30
주일에배 382부 오후 6:00
주일에배 383부 오후 6:30
주일에배 384부 오후 7:00
주일에배 385부 오후 7:30
주일에배 386부 오후 8:00
주일에배 387부 오후 8:30
주일에배 388부 오후 9:00
주일에배 389부 오후 9:30
주일에배 390부 오후 10:00
주일에배 391부 오후 10:30
주일에배 392부 오후 11:00
주일에배 393부 오후 11:30
주일에배 394부 오후 12:00
주일에배 395부 오후 12:30
주일에배 396부 오후 1:00
주일에배 397부 오후 1:30
주일에배 398부 오후 2:00
주일에배 399부 오후 2:30
주일에배 400부 오후 3:00
주일에배 401부 오후 3:30
주일에배 402부 오후 4:00
주일에배 403부 오후 4:30
주일에배 404부 오후 5:00
주일에배 405부 오후 5:30
주일에배 406부 오후 6:00
주일에배 407부 오후 6:30
주일에배 408부 오후 7:00
주일에배 409부 오후 7:30
주일에배 410부 오후 8:00
주일에배 411부 오후 8:30
주일에배 412부 오후 9:00
주일에배 413부 오후 9:30
주일에배 414부 오후 10:00
주일에배 415부 오후 10:30
주일에배 416부 오후 11:00
주일에배 417부 오후 11:30
주일에배 418부 오후 12:00
주일에배 419부 오후 12:30
주일에배 420부 오후 1:00
주일에배 421부 오후 1:30
주일에배 422부 오후 2:00
주일에배 423부 오후 2:30
주일에배 424부 오후 3:00
주일에배 425부 오후 3:30
주일에배 426부 오후 4:00
주일에배 427부 오후 4:30
주일에배 428부 오후 5:00
주일에배 429부 오후 5:30
주일에배 430부 오후 6:00
주일에배 431부 오후 6:30
주일에배 432부 오후 7:00
주일에배 433부 오후 7:30
주일에배 434부 오후 8:00
주일에배 435부 오후 8:30
주일에배 436부 오후 9:00
주일에배 437부 오후 9:30
주일에배 438부 오후 10:00
주일에배 439부 오후 10:30
주일에배 440부 오후 11:00
주일에배 441부 오후 11:30
주일에배 442부 오후 12:00
주일에배 443부 오후 12:30
주일에배 444부 오후 1:00
주일에배 445부 오후 1:30
주일에배 446부 오후 2:00
주일에배 447부 오후 2:30
주일에배 448부 오후 3:00
주일에배 449부 오후 3:30
주일에배 450부 오후 4:00
주일에배 451부 오후 4:30
주일에배 452부 오후 5:00
주일에배 453부 오후 5:30
주일에배 454부 오후 6:00
주일에배 455부 오후 6:30
주일에배 456부 오후 7:00
주일에배 457부 오후 7:30
주일에배 458부 오후 8: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rg.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청년(교육부)세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AM
주일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美 텍사스 기독교대학,
젠더 관련 학과 폐지 결정

©Wikimedia Commons/Amymay52/Public Domain

텍사스 기독교대학교(Texas Ch_ristian University·TCU)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인종·젠더 관련 학과 두 곳을 오는 학년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트워스에 위치한 TCU는 성명에서 여성·젠더학과(Women & Gender Studies)와 비교 인종·민족학과(Comparative Race and Ethnic Studies)를 2026년 6월부로 공식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TCU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극히 낮은 등록 인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에 따르면 2025년 가을 기준 비교 인종·민족학과 전공자는 9명, 여성·젠더학과 전공자는 2명에 불과했다. 두 학과가 폐지되면 해당 교수진과 전공·부전공 학생, 관련 강의는 모두 영문학과로 이관된다. TCU 측은 학생들이 앞으로도 다른 학과의 틀 안에서 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젠더학과는 그동안 사회적 성(gender)·생물학적 성(sex)·섹슈얼리티의 사회적 구성 개념, 교차성(intersectionality), 특권과 억압 등 이론을 가르쳐왔으며,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 프로젝트 기획·실행 교육도 포함해왔다. 비교 인종·민족학과는 고등교육의 ‘탈식민화’를 목표

로 하며, “사회 전반의 다양한 억압 체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교육”을 표방해왔다.

한편, 이번 결정은 TCU 내 다양성·형평·포용(DEI)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9월에는 총장 고문이자 최고포용책임자였던 조너선 벤자민-알바라도 박사가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대학은 관련 기능 일부를 다른 부서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4월, TCU는 다양성·포용 관련 전담 부서인 ‘Office of Diversity and Inclusion’을 폐지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콘텐츠를 삭제했다. 버넌 의학과대와 간호·보건대학 역시 자체 DEI 페이지를 제거했다.

텍사스 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정부 시기, 그렉 애벗 주지사가 모든 주정부 기관에서 DEI 사무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DEI 관련 행정명령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TCU는 전(前) 성전환자 클로이 콜(Chloe Cole)이 참석 예정이던 턴닝포인트USA(Turning Point USA) 행사 취소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이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TCU는 폭스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요청이 너무 늦게 왔고, 해당 장소는 이미 예약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퓨리서치 종교지형 연구 “美 인구가
100명이면 기독교인은 62명”

©Unsplash/Timothy Eberly

미국을 100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축소해도 기독교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할까?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미국의 종교 지형을 새롭게 분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2023~2024년 진행된 대규모 ‘종교 지형 조사(Religious Landscape Study·RLS)’ 자료를 토대로 미국 사회의 신앙 분포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024년 3월 4일까지 약 3만7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성인 인구 2억6천2백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1억6,200만 명, 무종교인은 약 7,6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러한 방대한 숫자가 종교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약 미국을 수억 명이 아닌 100명의 작은 마을로 상상한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명의 마을’에서 기독교인은 여전히 62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복음주의 개신교 23명, 가톨릭 19명, 주류(mainline) 개신교 11명, 역사적 흑인 개신교 전통 5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몰몬교) 신자 2명, 여호와의 증인과 기타 소규모 종파 구성원 2명도 기독교

범주에 포함됐다.

반면 종교가 없다고 밝힌 무종교인은 29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웠다. 이들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혹은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비기독교 신앙인은 총 7명으로, 유대교 2명, 이슬람 1명, 불교 1명, 힌두교 1명, 기타 소수 전통 2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성에 나이를 적용하면 기독교의 ‘고령화’가 더욱 뚜렷해진다. 마을의 기독교인 가운데 50세 이상은 35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지만, 18~29세는 9명에 불과했다. 반대로 무종교인의 경우 50세 미만이 20명으로, 젊은 세대에서 비종교적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기독교 여성 34명, 기독교 남성 28명으로 여성 비율이 다소 높았다. 무종교인의 경우 남성 15명, 여성 14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인종 구성도 주목할 만하다. 마을 인구 중 백인 개신교인은 25명, 백인 무종교인은 19명으로 추정된다. 흑인 개신교인은 7명,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올해 2월 발표된 RLS의 이전 보고서와도 일치한다. 당시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젊은 연령층일수록 종교와 거리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 ‘향후 미국 종교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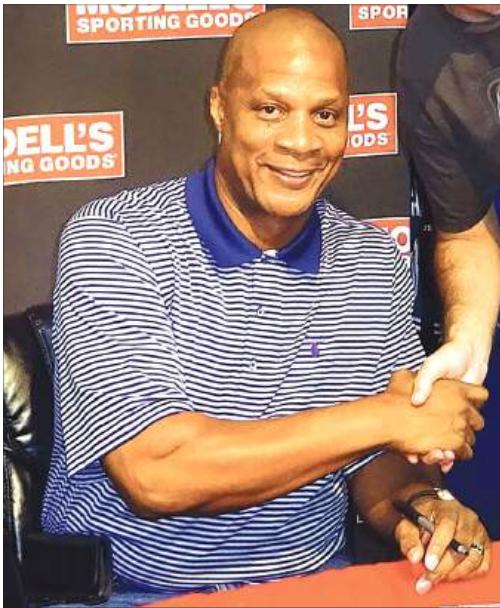
전 MLB 스타 대럴 스트로베리,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메이저리그(MLB)에서 여덟 차례 올스타에 선정된 대럴 스트로베리가 최근 자신이 받은 사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뤄진 자유”라고 고백했음을 최근 보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면을 내렸던 순간을 회상하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실수 없는 인도”였다고 강조했다.

CP는 스트로베리가 최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위치한 세리던교회 74주년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섰다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 메츠를 비롯해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아티스타는 성경 구절을 요약해 전하며, 이번 사면이 신앙의 변화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스트로베리는 사면 발표 당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당시 상황을 상세히 남겼다. 그는 “전날 오후 4시 37분,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아내를 돌보며 잠시 누워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워싱턴 D.C.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표시가 떴서 받았는데, ‘스트로베리 씨, 대통령께서 당신과 통화하길 원하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잠이 확 달아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스트로베리의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곧이어 “당신의 과거를 완전히 사면한다”고 말했다. 스트로베리는 “그 순간 아내가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내 과거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경험이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는 한 남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친구를 깊이 생각해준 행동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함께 찍은 사진들도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 삶의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 주고,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깨끗하고 자유롭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미 법무부 사면국에 따르면 스트로베리는 트럼프가 같은 날 사면한 7명 중 한 명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스트로베리는 죄를 인정하고 세금을 환급했으며, 이후 금주 생활을 유지하고 강한 기독교 신앙 속에서 플로리다의 중독 회복 센터 설립에도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구 선수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접은 스트로베리는 지난 2013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2019년 남부캘리포니아 하베스트 집회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감사하다. 그 일이 없었다면 야구에 5천만 달러를 더 벌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돈과 성공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었다면,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연 기자



전 메이저리그 선수 대럴 스트로베리 목사. ©wikipedia

자이언츠, 뉴욕 양키스 등에서 활약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지금은 목회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나에게 사면을 주셨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로베리에게 1995년 소득세 탈세 혐의로 인한 전과를 사면했다. 당시 그는 3년의 보호관찰과 6개월의 자택 구금, 100 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받았었다. 스트로베리는 “여러 행정부가 사면을 검토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선택해 사명을 이루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 나는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전했다. 스트로베리는 이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미국에서 가장 죄 많은 도시 5곳은?

미국의 ‘죄악 도시’가 라스베이거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WalletHub)는 11월 17일 미국 전역에서 182개 도시를 대상으로 음주·도박·성인 오락시설 수·폭력범죄 등 37개 항목을 분석한 ‘미국에서 가장 죄 많은 도시(Most Sinful Cities in America)’ 보고서를 공개했다.

라스베이거스는 예상대로 1위를 지켰지만, 보고서는 “악덕과 일탈 행동을 조장하는 도시는 미국 전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월렛허브 애널리스트 칩 루포는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사회 전반이 ‘죄악적’이라고 보는 활동들이 있다”며 “폭력 범죄나 신분 도용 같은 항목은 명백히 해악을 끼치고, 음주나 도박은 통제되지 않으면 큰 파괴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죄악 도시란 이러한 활동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미 인구조사국, 노동통계국, FBI, IRS, 도로교통안전국(NHTSA), 정신건강서비스국, 문제도박협회 등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10월 20일 기준으로 수집·분석했다.

상위 5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1위 라스베이거스(네바다)

‘죄악의 도시(Sin City)’라는 별명답게 1위를 차지했다. 1인당 카지노 수가 전국 2위에 달하며, 성인 오락시설도 전국 최다 수준이다. 라스베이거스 주민들은 포르노·스트립 클럽 등 성인 콘텐츠 관련 검색량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신분 도용 및 사기 신고 건수도 전국 5위. 24시간 엔터테인먼트 환경 탓에 ‘나

태’ 항목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2위 휴스턴(텍사스)

성인 오락업소 수에서 전국 3위를 기록했으며, 불륜·포르노·스트립 클럽 관련 검색량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2023년 1월~2025년 6월 기준 대량 총격 사건 발생 건수는 전국 5위였으며, 폭력범죄율은 21위, 가정폭행 발생률은 28위로 나타났다.

3위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과 달리 전체 순위 3위를 기록했다. 증오범죄 발생률은 전국 14위, 대량 총격 사건은 8위를 차지했다. 봉사 참여율과 기부율도 매우 낮아, 전국 5번째로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였다.

4위 필라델피아(펜실베이니아)

‘형제애의 도시’라는 명성과는 달리 전미 4위의 죄악 도시로 평가됐다. 월렛허브의 ‘분노·증오’ 지수에서 2위, ‘질투’ 지수에서 7위를 기록했다. 탐욕과 나태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색욕과 허영 항목에서는 각각 12위와 18위로 나타났다.

5위 애틀랜타(조지아)

미 남부의 대표 도시 애틀랜타는 전체 5위를 차지했다. 질투·색욕 부문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으며, 허영 부문에서도 전국 9위였다. 반면 ‘과도함·악덕’ 항목에서는 117위, ‘탐욕’ 항목에서는 168위로 낮았고, 나태 항목에서는 182개 도시 중 92위였다. 월렛허브의 이번 연구는 도시별 사회적 문제와 범죄, 소비문화, 온라인 행동 패턴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미국 전역에 다양한 형태의 ‘죄악 도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침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9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아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연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카데미)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목요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승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축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살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한국계미국시민협회(LOKA) 뉴욕 회장 이준성 목사 임명

한국계미국시민협회 제 24대 박상원 전국회장은 오렌지 한미 시민권자협회(LOKA-OC, 회장 씨니 박) 김도영 전국이사장을 위촉한데 이어 이준성 브루클린한인회 지도목사를 뉴욕지부 회장에 위촉하고 12월 1일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1996년 창립된 한국계 미국시민협회는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주류 사회 진출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한인 커뮤니티로의 발전을 목표로 ▲시민권 취득을 교육 ▲6학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지도자 육성프로그램인 리더십과 멘토링 데이 행사 ▲한인 사회 발전에 공헌한 미정지인들에게 수여하는 ‘시민의상’ ▲한국어 교육 홍보 ▲이민자 권리 보호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해오고 있다.

박상원 회장은 “내년 LOKA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오렌지가운티에서 전국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김도영 전국이사장은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LOKA-OC)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미주에서 가장 많은 한국계

한국계미국시민협회 제 24대 박상원 전국회장은 이준성 목사를 뉴욕지부 회장에 위촉하고 12월 1일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미국 정치인을 배출한 지역을 이끌어왔다.

김도영 이사장은 “그동안 로카가 미 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남가주에서 전국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라며 “남가주 지역에서 로카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4대 한국계미국시민협회의 박상원 전국회장, 김도영 전국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조셉 리 기자
한국계미국시민협회 lokamd.org/

ICMM ‘웹사이트 구축 실무’ 공개 강좌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CMM)가 주관하는 ‘웹사이트 구축 실무 강좌’가 12월 8일(월) 개강한다. 이번 강좌는 2주간 매주 월·화·수 저녁 7시에 진행되며,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Zoom)과 현장 강의를 동시에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의역할과비전
2. 웹사이트 구축 실무
3. WordPress플랫폼을 사용한 개인별 웹사이트 제작 실무
4. 페이지 구성, 포스팅, 콘텐츠 관리, 테마,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5. 효과적인콘텐츠업로드
6. 사진, 동영상 등록
7. SEO(검색 엔진 최적화) 활용
8. 웹사이트 업데이트와 관리

이 강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직접 WordPress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강의를 총괄하는 제임스 구 박사는 경영학 및 IT 분야 전문가로, 현재 그레이스 글로벌 비전스쿨(Grace Global Vision School) 대표로 교육 선교에 힘쓰고 있다.

특별 혜택으로 수강생에 한해 2026년도 홈페이지 호스팅을 무

료로 제공해 준다. 참가자는 기존에 구입한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구입하거나 실비 구입을 통해서 자체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소유할 수 있다. 수강료는 \$300.

웹사이트: globalvision.universitychurchhomepage.org

강의 시간 :

12월 8일(월)
저녁 7시 개강
2주간 월·화·수 집중과정

강의신청QR

→ 1면 기사 <美 릴리 재단>에 이어서 베일리대학교는 약 1,000만 달러 가까운 지원을 받았으며, 코버넌트신학교, 프레즈노퍼시픽대, 그랜드캐년대, 노스웨스트칼리지&신학교, 노스웨스트나자리대, 트리니티앵글리칸신학교, 밴쿠버신학교 등이 뒤를 이었다.

최소 금액인 250만 달러 지원은 아틀란틱신학교(Astlantic School

of Theology)가 받았다.

릴리 엔다우먼트는 또 기독교 신앙과 삶의 이야기 공유를 목적으로 한 ‘국가 스토리텔링 이니셔티브(National Storytelling Initiative)’를 통해 48개 기관에 2억3,200만 달러 이상을 추가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며 사랑·봉사를 실천하고 있

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제작·공유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코블 부회장은 “미디어는 종교 쇠퇴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공동체에서 신앙이 희망과 의미를 주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강력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이러한 신앙의 생명력을 더 널리 조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진유철 칼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금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염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8:12-14a) 실제로 돈이 없고 물질로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재물이 잘 벌리고 잘 살게 되면 그것으로 기도가 많아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보다 재물 없는 사람에 대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함으로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딤후6:17)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받아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는 지금 내게 있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 맘대로 사

용하며 높아지려는 마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 십일조를 온전히 하지 않고, 포장은 멋지게 선교나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맘대로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대부분 끝이 안 좋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재물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확실히 믿어져서 풍부해져도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평안함으로 기도하며 오병이 어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딤후6:17)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속 좁은 인간들처럼 인색하고 나누어주기를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넉넉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우리가 기쁨을 누

리며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물질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지, 반대쪽 극단에 있는 비물질주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에 부흥을 이룬 코튼 매더 목사는 ‘기독교라는 어머니는 번영이라는 딸을 낳는다. 그러나 이어 그 딸은 어머니를 잡아먹는다.’는 유명한 글로 경각심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 그러한 자가 되게 하라”(딤후6:18)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딤후6:17)의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롱!

강준민 칼럼

날마다 가꾸고 싶은 7가지 마음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날마다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원에는 반드시 정원사가 있습니다.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황폐합니다. 정원사가 하는 일은 날마다 정원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제가 지키고 가꾸고 싶은 7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초심(初心)입니다. 초심은 처음 마음입니다. 초심의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경험했던 감동과 떨림의 경험입니다. 초심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초심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심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베 소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4). 초심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이 깃들

면 초심이 사라집니다. 초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냉담한 마음이 됩니다. 초심은 사명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초심은 거듭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수의 원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초심은 회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참된 영성은 초심을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는 순간 길을 잃지만, 초심을 회복하는 순간 다시 길이 열립니다. 둘째, 항상심(恒常心)입니다. 항상심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항상심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항상심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항상심은 일관성입니다. 항상심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신뢰를 낳습니다. 항상심은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 자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셋째, 진심(真心)입니다. 진심은 숨김 없고 꾸밈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심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신뢰의 언어입니다. 말은 속일 수 있지만 진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심은 관계의 근본입니다. 신뢰는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시 51:6). 어거스틴은 “진심은 사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전심(全心)입니다. 전심은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

니다. 전심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전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 전심은 열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전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만 전심을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충심(忠心)입니다. 충심은 충성을 낳습니다. 충성(忠誠)이란 마음 중심에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충심은 관계와 사명을 지켜 내는 영혼의 무게입니다. 충심이란 마음이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충심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충심은 조용하고 깊고 묵직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감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마 25:21). 충심을 품은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또한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합니다. D. L. 무디는 “진정한 충성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향상심(向上心)입니다. 향상심(恒常心)과 향상심(向上心)은 함께 동행합니다. 향상심은 지향성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향상심은 상승, 성장, 향상을 상징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향상심은 더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향상심은 더 발전하려는 마음입니다. 향상심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계발하려는 마음입니다. 향상심은 성장의 동력입니다. 성숙의 조건입니다. 향상심은 겸손과 배우는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향상심은 성공보다 성숙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내적 열망입니다. 저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꾸준한 작은 향상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향상심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향상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곱째, 뒷심입니다. 뒷심은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뒷심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힘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뒷심이 있어야 합니다. 뒷심의 본질은 지속력입니다. 지속력이란 잠깐 반짝이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뒷심은 회복력입니다. 거듭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뒷심은 내내력입니다. 고난과 지루함과 권태를 이겨내고 계속 전진하는 힘입니다. 왜 뒷심이 중요할까요? 성과는 끝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뒷심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뒷심을 강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겨두리라”(갈 6:9). 하나님의 사람은 초심으로 시작하고, 향상심으로 중심을 지키며, 진심으로 관계를 세우고, 전심으로 헌신하며, 충심으로 신뢰를 쌓고, 향상심으로 성장하며, 뒷심으로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마음을 가꾸십시오.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c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성경필사 제3기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 : 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교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 말씀을 붙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목동칼럼 (8)

New Normal vs. 하나님의 노멀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지난 칼럼에서 ‘ACTS 1881’로 명명하였던 폭발적인 하나님의 선교로 오늘날의 세계는 최고의 선교 전성기 임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중공에 의해 덮여진 일대일로는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던 로마 제국의 대로와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효율적인 복음의 대로가 되었다. 이는 모두 선교전략가이신 하나님의 선제적 포석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어느새 비전 50과 선교 동역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2020년, 인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한 소식은 결국 온 세계에 재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되었다. 이후 COVID-19는 2020

년 1월 - 2월, 국가를 넘어 선 많은 여행자들과 도시와 도시 간 연결을 통해 전 세계로 신속히 확산되었다. 결국 UN의 WHO는 2020년 3월 11일, 역사상 세 번째 바이러스 대유행을 선언함으로 팬데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국경봉쇄, 도시 봉쇄, 학교, 직장, 교회 등과 같이 대중적 모임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팬데믹의 맹위 속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2023 WHO 공식 보고에 의하면 700만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초과 사망률(Excess Mortality) 기반의 추정 사망자 수, 실제적 사망자 수는 1,5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하여 선교 전략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국경 폐쇄와 이동의 제한으로 과거에 진행되었던 ‘파송 중심 선교’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2020 - 2022년 동안 단기선교, 장기선교 계획들이 모두 중단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국가가 대폭 증가함으로 기존의 “파송 → 현장 사역” 모델이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여 비전 50도 새로운 선교 모델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선교(Digital Mission)로의 전환이었다.

대면으로는 현장에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당시에 Zoom과 같은 비대면 네트워크로 우리들은 더욱 새로운 접

근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비전 50 글로벌 제자훈련이 Zoom을 통해 각 나라의 비전 50 본부를 통하여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몇 번 비대면 제자훈련 강의를 하였는데, 당시에 비전 50 국가 본부가 있는 10개국에 제자훈련을 Zoom으로 오픈하였고, 당시에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경우 각각 수백명의 비전 50 목회자들이 들어와 제자훈련을 함께 나누었다. 그런데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보통 Zoom을 통해 제자훈련 할 때에 화면에 70개 정도의 참여한 그룹의 모습이 카메라로 보이는데,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경우 스마트폰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수십 명이 강의를 함께 듣는 모습을 보았다. 예를 들어 Zoom 화면에 참가자 창들이 120개가 뜬다면 그 중에 절반이 디바이스 하나를 켜두고 수십명이 한 자리에 모여 강의를 듣는다고 하니 그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그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였다.

팬데믹은 또한 비전 50 각 국가 본부의 코어를 더욱 강화해주었다. 팬데믹으로 대면하는 접근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들의 많은 사역을 각 국가의 리더십과 나누며 직접 그 사역을 각각의 국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위한 위임과 단계적으로 실제적 위

임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로컬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현지의 토착교회 목사님들이 현지 실정에 맞게 복음 사역을 활기차게 펼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많은 보고가 들어왔다. 이러한 현지 비전 50 국가 대표자들로 인해 우리들은 그 이웃한 국가에 대한 선교 수용성을 잘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같은 반기독교적 국가의 경우에 오히려 많은 접근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팬데믹 이전 에 복음의 접근이 너무나도 힘들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리카의 많은 이슬람 국가에도 엄청난 영혼 구원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가리켜 혹자는 지금의 때를 ‘선교 2.0’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혹자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뉴노멀이라 하며, 교회가 뉴노멀을 앞장 서서 받아들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시대의 급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든 뉴노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노멀을 따라 신비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강태광 칼럼

아들과 딸은 어디서 울적할까?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감사절 연휴에 동부에 사는 딸과 긴 통화를 했다. 서로 바빠서 간단한 안부와 기도만 나누는 우리는 모처럼 여유롭게 통화했다. 딸은 어린 시절 감사한 일들, 숨겨 둔 어린 시절 아픔과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을 나눴다.

독서광 딸과 종종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 올해도 60권을 읽었다. 대견하고 부럽다. 책에 관해서 나누는 딸과의 대화는 늘 풍성하다. 우리는 장르와 시간에 제한없이 책들을 나눈다. 읽은 책들의 줄거리, 감상 그리고 비평 등등... 그날 우리는 <H 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을 나누었다.

<H 마트에서 울다 (Crying in H-Mart)>는 ‘미셸 자우너’라는 한인 작가가 쓴 자전적

수필집이다. 미셸 자우너는 한국인 어머니와 유럽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혼혈아다. 그녀의 책이 뉴욕 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55주 동안 올랐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해 화제가 되었다.

<H 마트에서 울다>는 미셸 자우너의 성장과 치유를 담은 회고록이다. 미셸 자우너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성장했다. 정체성 혼란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일반적 현상이다. 필자도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다. 주변인의 삶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미셸 자우너는 미국인 엄마들과는 너무 다른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 엄마만 왜 이렇지?”라는 질문을 품고 성장했다. 미국인 엄마들은 자식에게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고 자존감을 지켜 주려고 애쓰지만, 자기 엄마는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 기준으로 잔소리하고 다그쳤다.

미셸 자우너는 엄마를 싫어하기도 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엄마 음식으로 엄마의 사랑을 느꼈다. 엄마는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아플 땐 죽을 끓여 주셨다. 그래서 미셸 자우너는 아픈땐 죽을 먹고,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고, 여름철에는 팔빙수를 먹으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랜다.

미셸 자우너는 장성하여 사회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떠났다.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겪고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미셸 자우너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한데 엄마와는 점점 더 멀어진다. 미셸 자우너가 25살 때 엄마가 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에 엄마에게로 달려간다. 병든 엄마를 보며 절박한 마음에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자우너는 엄마가 복용하는 약과 먹은 음식을 적었다. 살아생전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남자친구와 결혼식도 올린다. 엄마는 기적적으로 딸의 결혼식까지 버텨 주셨지만, 곧 돌아가셨다.

<H 마트에서 운다>의 첫 문장이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 마트에만 가면 운다 (Ever since my mom died, I cry in H Mart)”이다. 이 첫 문장에 독자

들은 울적하다. 나에게도 소천하신 아버님을 생각하며 울적하는 지점이 있다.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풋김치를 보고, 섬기셨던 시골 교회를 보고,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과 찬송을 보면 울컥울컥 울적한다.

‘먼 훗날 아들과 딸은 어디서 아빠를 추억할까?’를 생각했다. 아빠와 함께 읽은 책들을 보고 울까? 함께 청국장을 먹던 것을 추억하고 울적할까? 먼 훗날 아빠와 함께 기도하던 날들을 추억하며 울적하고 기도하면 좋겠고, 예배당에서 말씀 들던 기억에 울적하면 좋겠다. 그 통화 이후로 아들과 딸은 어디서 울적할까?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 파리 튼다.



202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I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카카오오픈 채널: "탈봇" 검색
-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시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한국어 홈페이지: www.mbl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극히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65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il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l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상담문의: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JOINT and JOINT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관절 통증과 연골 손상엔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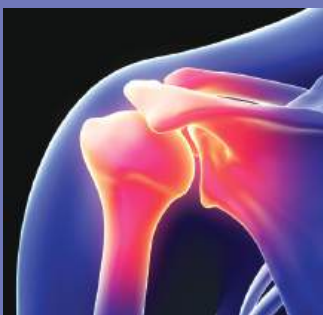


귀생당
조인트 앤 조인트 -
"당신의 관절
다시, 편안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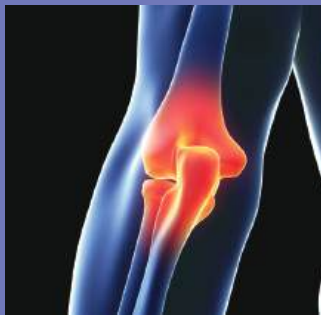
귀생당 JOINT & JOINT는 연골과 관절의 핵심 성분인
천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을
주요 성분으로 관절과 연골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귀생당 JOINT & JOINT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들인
보스웰리아, 터메릭, MSM의 천연 화합물을 엄선하여 재 구성함으로
관절, 연골 손상 예방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완화해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JOINT & JOINT의 효능과 효과

- 관절 연골과 기능 개선
- 혈액이 연골 내로 흡수되어 충격완화 기능에 도움
-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반응을 억제
-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염증억제, 통증 완화
- 콜라겐 생성을 개선하여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유지




213.384.3333

www.kiseidousa.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로마 세계의 그리스도교화

현대 사회에서 종교와 문화의 관계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



피터 브라운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로마 세계의 그리스도교화에 관하여
양세규 역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피터 브라운 | 양세규 역
비아 | 200쪽 | 17,000원

‘로마의 그리스도교화’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학계에서는 그 학자의 종교 여부, 신학 감수성, 역사관, 정치적 시선이 은연중에 드러나곤 한다

회의적인 세속학자들은 ‘로마의 그리스도교화’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허상이었다고 말하거나, 찬란한 로마 문명이 쇠락하는 과정이라 이야기한다

고대 후기 연구의 선구자 피터 브라운이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행한 세 차례 강연을 바탕으로 한 『마침내 그들이 로마를 바꾸어 갈 때: 로마 세계의 그리스도교화에 관하여』는 로마가 그리스도교화가 되는 과정을 재해석했다.

저자 브라운은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과정을 단순한 승리와 패배의 이분법적 서사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미묘한 문화적 변용의 과정으로 재구성한다. 이 책은 기독교 승리의 서사나 고전 문명의 쇠퇴라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 역동적인 문화적 융합과 변화의 과정을 세밀하게 포착함으로써 고대 후기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스도교화: 서사와 과정

브라운은 전통적 승리 서사와 쇠망 서사를 넘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그는 ‘그리스도교화란 단순히 다신교가 일신교로 대체된 사건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실제로는 권위와 성스러움, 사회 질서의 구조가 재배열된 깊은 문화적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브라운은 그리스도교화(Christianisation)를 둘러싼 지배적 서사와 실제 과정 사이의 간극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그는 4세기와 5세기 초반 기독교 지식인들이 구축한 ‘그리스도교의 초자연적 승리’라는 서사가 역사적 현실을 얼마나 단순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브라운에 따르면, 이러한 서사는 역사적 과정을 신의 승리라는 초자연적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효과를 가졌다. 브라운은 4세기경 영국 안니아누스(Anianus)라는 인물의 사례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는 일상적 현실에서 종교적 변화가 얼마나 복잡하게 전개됐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는 4세기와 5세기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단순히 천상에서 싸움으로 묘사했던 당대 기독교 서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러한 서사가 역사적 현실의 복잡성을 가린다고 주장한다.

피에르 쉬뱅(Pierre Chuvin)의 표현을 빌려 4세기를 ‘휘청대는 세

기(Wavering Century)’로 규정하는 브라운은, 그리스도교화가 단일한 사건이나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속도와 강도로 진행된 복합적 현상이었음을 강조한다. 브라운의 해석에 따르면, 기독교화는 단순히 종교적 변환이 아니라 로마인의 정체성과 권위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이었다.

교회는 기존의 정치, 종교, 질서를 정면으로 부수는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틀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즉 교회는 제국을 붕괴시키는 대신, 기존 정치적 상상력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고 세계를 재구성했음을 말한다. 브라운은 로마 세계의 그리스도교화 과정이 교회의 공식 기록이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점진적이고 불균등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과 밀라노 칙령(313년) 이후에도 로마 사회에서 다신교적 실천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분석은 로마의 그리스도교화를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깊은 문화적 변용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불관용의 한계

브라운은 초기 기독교 내 배타성(intolerance)을 다룬다. 그리스도교 황제들의 법령이 실제로 이교(異敎) 관행의 억압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통념에 도전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황제들의 법령이 다신교를 강력하게 억압했다고 여겨지지만, 브라운은 이러한 관점이 법령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 후에도 로마 제국 내에서 다신교적 관행은 상당 기간 지속됐다. 브라운은 법령 선포와 실제 집행 사이 간극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현실에서 불관용 정책은 종종 제한된 효과만을 발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지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 데살로니카 칙령을 통해 니케아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브라운은 황제의 법령



▲로마 콜로세움. ©unsplash.com

이 즉각적인 종교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사회 내에서 다양한 종교적 실천의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는 복잡한 과정이 전개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도시 엘리트들이 전통적 종교 의례의 보호자로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들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 관계가 단순한 적대감이 아닌 복잡한 상호 작용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은 4-5세기 로마 제국에서 종교 정책과 실제 현실 사이 간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브라운은 제국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지방의 일상적 실천 사이의 긴장을 포착함으로써, 그리스도교화 과정이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닌 복잡한 문화적 협상의 과정이

었음을 보여준다.

거룩함의 중재자: 고대 후기 그리스도교의 성자

브라운은 고대 후기 대표적 종교 현상인 성인 숭배를 통해 그리스도교 이전의 믿음과 관행이 어떻게 지속되고 변형되었는지를 탐구한다. 그는 성인전(聖人傳)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공식적으로는 금지됐으나, 실제로는 지속된 이교적 믿음과 실천의 흔적을 찾아내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교의 승리를 단순한 종교적 대체가 아닌, 로마 세계의 문화적 자원과 구조를 재해석하고 변형시키는 창조적 과정으로 이해하게 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 전서 4:4

For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TIMOTHY 4:4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송영 투크 설렁탕



경계가
종이와
뚜껑까지!

5주년 기념 스페셜
투고 ONLY - 10AM ~ 2PM
설렁탕 \$10.99 Tax 포함가
설렁탕, 백미, 김치, 깍두기



Only 화요일 투고스페셜
▶ 곱배기설렁탕 \$18.50 tax
▶ 곱배기해장국 \$18.50 tax
▶ 곱배기도가니 \$26.50 tax



Only (1+1) 목요일 투고스페셜
갈비탕 or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해장국을 무료로 드립니다.
\$22.15 +tax {갈비탕 or 도가니탕 & 표고우거지해장국}



신메뉴 우거지갈비탕 개시!



아침 스페셜
GOOD MORNING SPECIAL
매일 | 7:00AM ~ 10:00AM
표고우거지해장국 or
통큰설렁탕 or 북어국
\$10.96 +tax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진리 없는 자유의 말로

〈절규〉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린 〈골고다〉

십자가 그리스도 주위 군상들
기독교 없는 고통과 갈등 초점
사적 감정 토로할 이미지일 뿐
현대 예술, 문화적 자살인가?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1863~1944)를 말할 때 떠오르는 것은 〈절규〉(1893)라는 작품이다.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지 이 작품은 뭉크의 대표작이자, 그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웅변해주는 그림이 되었다. 그로 인해 표현주의의 탄생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절규〉는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가늠케 해준다.

뭉크 그림의 쓸쓸한 분위기는 그의 모국인 노르웨이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가족사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는 다섯 살에 폐렴으로 어머니를 잃은 데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누나마저 같은 병으로 잃었고, 이모 카렌도 세상을 떠났다. 여동생이 어린 나이에 사망했을 정도로 그의 가족사는 슬픔과 상실로 점철돼 있다. 뭉크는 이러한 경험에 짓눌려 살았고, 그러는 동안 불안과 공포는 그의 예술에 우울한 그림자를 남겨 놓았다.

뭉크 집안은 성직자와 학자를 여럿 배출한 명문가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목회자였고, 부친 크리스티안 뭉크(Christian Munch)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다. 부친은 크리스티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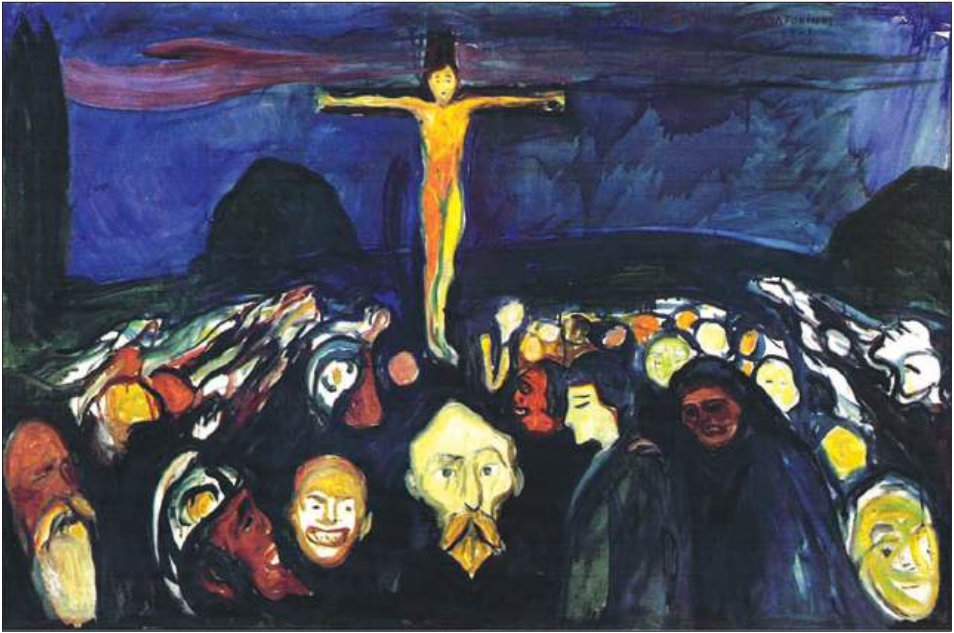
아(지금의 오슬로) 외곽에 개인 병원을 열어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양육했고, 엄격한 도덕적 가르침을 강조하였다. 부친은 뭉크가 잘못을 저지를 때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는데, 이는 나중에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뭉크는 명시적으로 신앙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지만, 종종 기독교적 상징성을 취한 작품으로 자신의 고민을 드러냈다.

〈골고다〉(1900)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주위로 많은 군상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혹자는 뭉크가 기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십자가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희생보다는 기독교를 떠난 사회, 인간의 고통과 내적 갈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골고다〉 주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빠져 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가 하면, 비웃거나 비열한 표정의 인물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듯 죄의 용서와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등 성경적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 삶에 열중하는 군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뭉크는 골고다 언덕 아래 자신이 만났던 몇몇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십자가 바로 아래 수염을 기른 남성은 청년 시절 뭉크에게 사상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준 크리스티안 크로그



▲에드바르트 뭉크, 골고다, 캔버스에 유채, 80x120cm, 1900, 뭉크 미술관 소장.

(Christian Krohg)이며, 그 뒤에 있는 붉은 얼굴의 남자는 자유 분방했던 문인 프시비세프 스키(Przybyszewski), 고개 숙인 청년은 젊은 날의 뭉크, 그리고 뭉크의 어깨를 잡고 있는 여인은 어릴 적 자신을 돌보아준 이모 카렌(Karen)으로 추정된다.

크로그는 뭉크가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왕립미술학교 학장 시절 만난 스승이었다. 크로그는 뭉크를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를 해주는 등, 뭉크의 잠재력을 알아본 사람이었다. 그림에 크로그를 등장시킨 것은 그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 생각한다. 크로그는 급진 사회예술그룹인 ‘크리스티아니아 보헤미안(Christian Bohemen)’을 접하게 됐는데 이 단체는 노르웨이 사회에 일대 파문을 가져왔다. 그룹 수장 역할을 했던 한스 예게르(Hans Jaeger)는 일부다처제와 자유연애를 지지하고 기독교와 부르주아 계급의 입습에 대해 공격한 자유주의자였다(유성혜, 『뭉크, 노르웨이에서 만난 절규의 화가』, arte, 2019, 28-35쪽).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뭉크는 ‘크리스티아니아 보헤미안’과 같은 전위예술가들을 만나면서 큰 변화와 혼란을 겪게 되었고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크로그 뒤 붉은 얼굴의 남자는 베를린에서 만난 문인 프시비세프스키이다. 그는 ‘검은 새끼 돼지’로 불리던 전위예술단체 일원이었는데, 이 모임에서 미모와 실력을 갖춘 다그니 율(Dagny Juel)을 만났다. 그녀는 단숨에 그룹 멤버들의 뮤즈가 되었고, 멤버들은 그녀의 호의를 사기 위해 다투 정도였다.

뭉크도 다그니 율을 흠모하게 되었고, 〈마돈나〉의 모델로 삼을 만큼 가까이 지냈다. 둘의 관계가 좁혀지나 싶던 중, 그녀는 프시비세프스키와 결혼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행복하지 못했고, 다그니 율은 나중에 젊은 남자에게 총을 맞고 살해당했다. 프시비세프스키의 사나운 표정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원망 내지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뭉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카렌 이모였다. 어머니 없이 자란 뭉크에게 그녀는 그나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림에서 이모는 어깨를 두드리며 뭉크를 위로해준다.

〈골고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사적 감정을 토로하는 이미지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김현화는 이 그림에 대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개개인이 겪는 고통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이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거나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 군중은 십자가에 책형당한 예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내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마당에 타인의 고통에 무슨 관심을 가질 것이며, 누가 모함을 받든지 죽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김현화, 『현대 미술 골고다의 초대』,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222쪽)’라며, 꾀대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현대 예술을 문화적 자살로 평가기도 한다. 미술사학자 존 월포드(John Walford)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예술 이해는 ‘초월적 또는 통합적 질서가 우주를 다스린다는 생각’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기성 예술의 형식적 질서보다 파편화, 우연, 혼란, 부조화가 인간의 경험에 더 어울린다’고 했다(낸시 피어시, 홍종락 역, 『세이빙 다빈치』, 복있는 사람, 2015, 349쪽).

뭉크의 경우 초월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크리스티아니아 보헤미안’ 그룹과 ‘검은 새끼 돼지’ 작가들과 어울리면서 한껏 방임된 생활을 이어갔다. 이들 전위 예술가들은 기존 가치관과 구별되게 사회에 적대적이고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 세계를 만들어냈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안의 테마를 표현했다. 그들은 물론 신과 기독교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었다.

서성록 명예교수



▲에드바르트 뭉크, 밤의 방랑자, 캔버스에 유채, 90x68cm, 1923-1924, 오슬로 뭉크 미술관 소장.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지난호 기사 ‘조나단 에드워즈의 죽음, 순교적..’ 이어서 계속)

부흥과 선교 운동의 역사로,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교회 성장학적 관점으로 보았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선교학적 렌즈를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에게 적용하여, 그의 신학과 사역을 보다 입체적이고 균형 있게 분석하고자 했다.

책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신학적·철학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선교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6장에서는 스코틀리지 선교사역 동기, 사역 이해, 의미와 목표, 7장에서는 선교정보 확산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의 관계를 통한 세계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8장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남긴 선교학적 유산을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6장부터 8장까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선교학적 렌즈로 분석하여 단순한 신학자나. 목회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선교사의 삶과 정신을 살아낸 선교사로 재조명했다. 그는 단지 책을 쓰기 위해 선교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다. 교회 부흥과 선교는 분리되지 않으며, 부흥이 선교로 이어질 때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에드워즈의 생애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활동한 18세기는, 아직 미국이 독립되기 전 영국 식민지 시대였다. 그 당시 인디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인권 침해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던 시기였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터전을 빼앗기고, 억압받으며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세 가지 중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 세 가지다.

첫째는 ‘대변자로서의 사역’이다. 에드워즈는 억압받는 인디언 원주민들을 대신해 그들의 편에 서서 변호자이자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는 영국 백인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약자의 입장에서 원주민들을 돌보고 도왔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Incarnational) 사역과도 맞닿아 있다. 예수님께서 강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의 편에 서셨듯, 에드워즈도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하며 섬겼다.

둘째는 ‘교육 사역’이다. 에드워즈는 원주민들이 변화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영어를 가르쳤는데, 단순히 언어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영어를 사용했다. 당시 대부분의 영어 교육은 주입식이었지만, 그는 이야기식으로, 즉 성경의 비유나 내러티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쳤다. 이러한 접근은 학문적으로도 교육 방법 연구에서 주목받는 부분이다. 그는 주입식 대신 이해 중심의 대화식 교육을 펼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는 ‘설교 사역’이다. 에드워즈는 두 부류의 청중에게 설교했다. 하나는 영국 정착민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인디언 원주민들이었다. 그는 청중의 수준과 배경에 따라 설교 방식을 달리했다. 정착민들에게는 신학적이고 지적인 설교를, 원주민들에게는 비유와 이야기 중심의 설교를 전했다. 청중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말씀을 전달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 교육이나 설교, 봉사 모두는 말씀을 통해 인간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선교 사역의 핵심이었다.

Q. 조나단 에드워즈가 오늘날 미국 사회와 디아스포라 한인 가정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그의 ‘70가지 결심문’이 경건 생활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A. 우리가 직면한 신앙의 위기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히려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에드워즈는 단순한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낸 인물이다. 그의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적 지식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신학과 삶을 분리하지 않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살아 있는 신학자였다. 그 대표

적인 증거가 바로 그가 20세 이전에 작성한 ‘70가지 결심문’이다.

이 결심문은 단순한 도덕적 선언이나 자기계발적 다짐이 아니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성경적 기준에 따라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깊은 경건의 실천이었다. 그는 이렇게 결심했다.

“나는 나의 모든 말과 행위가, 내가 죽을 때 후회되지 않도록 살 것이다”, “나는 나의 성품을 날마다 변화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필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 세대는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 성적 무질서, 정체성 혼란, 자아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사회는 ‘네가 중심이다’, ‘느낌이 진리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혼란과 공허, 정체성의 붕괴다.

이럴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 세대를 위한 탁월한 영적 모델이 된다. 그는 어린 나이에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굴복시키며, 매일 자신의 동기와 감정, 사고와 행동을 성경의 거울 앞에 세웠다. 그는 끊임없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를 질문하며 자신을 훈련시켰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그의 인격을 세우고 영혼을 정결케 했다. 그는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Coram Deo)의 삶을 실천했다.

둘째, 에드워즈는 가정 신앙교육의 모범이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 강단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했으며, 각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했다. 그 결과 에드워즈의 가문은 후대에 수많은 신학자, 대학 총장, 판사, 목회자, 교수, 지도자들을 배출한 신앙 명문 가문이 되었다. 이러한 열매는 단순한 유전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가정교육과 부모의 경건한 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앙 전수에 어려움을 겪는 디아스포라 가정들에게 에드워즈 가정은 성경 중심의 양육이 다음 세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셋째, 그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회복하게 하는 인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짧고도 깊은 고백은 단순한 교리 문장이 아니라, 에드워즈의 삶 전체를 지탱한 신앙의 중심이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기쁨이며, 그분 안에서만 정체성과 만족

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오늘날의 혼란한 시대에 더욱 절실한 회복의 기준이 된다. 현대 사회는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메시지로 가득하지만, 그 결과는 정체성의 혼란과 관계의 붕괴다. 가정은 해체되고 교회는 방향을 잃고 청소년들은 존재의 이유를 잃은 채 방황한다. 이때 에드워즈의 하나님 중심 신학은 가정의 신앙의 중심으로,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청소년이 영광의 목적을 향해 다시 서도록 이끄는 복음적 나침반이 된다.

오늘날 다문화 사회 속에서 진리의 기준은 흔들리고, 신앙은 상대화되고 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간의 언어·문화·신앙 단절도 깊어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에드워즈의 경건한 삶과 성경적 통찰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이 시대 가정을 다시 세우고 세대 간 영적 회복을 이루는 실재적 도구가 된다. 그의 삶과 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정 중심의 신앙 전수는 디아스포라 한인 가정들이 다시 붙들어야 할 회복의 나침반이다.

Q.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A. 제가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다. 참 불행하게도 그는 스코틀리지 사역을 마감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가 처음에는 ‘뉴저지 칼리지(New Jersey College)’로 불렸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뉴저지 칼리지의 제3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당시 제2대 총장은 아론 버(Aaron Burr)였고, 그는 에드워즈의 사위였다. 에드워즈의 딸 에스더(Es-ther)와 결혼한 인물이다. 아론 버가 36세, 에스더가 20세로 16살 차이였다. 그런데 결혼 후 5년 만에, 아론 버는 41세의 젊은 나이로 과로와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에스더의 나이는 불과 25세였다. 사위가 세상을 떠나고 총장자리가 공석이 되자, 뉴저지 칼리지 이사회는 새로운 총장을 모시기 위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학문적 역량과 목회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청빙했다.

에드워즈는 처음에는 고사했다. 가족과의 거리, 건강 문제, 또 집필 중인 책과 연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사회가 세 번이나 간청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수락했다. 1757년 12월 이사회가 결정을 내렸고, 그는 1758년 1월 프린스턴으로 향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1758년 3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으로는 1758년 2월에 취임했

으니, 취임 두 달 만의 일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천연두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처럼 예방할 수단이 거의 없었다. 백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막 등장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단계였다. 에드워즈는 공동체의 건강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당시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며 자발적으로 천연두(Smallpox)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1758년, 3월 22일 5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많은 목회자들은 에드워즈의 예방접종 결정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르고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잇는 개혁신의 신학자들은, 질병이나 재앙과 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에 맞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에드워즈가 천연두 백신을 맞고 사망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죽음을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신성모독자’로 규정했지만, 기독교는 그를 ‘최초의 순교자’로 본다. 마찬가지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었다고 본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의 몸을 던져 인류의 유익을 위해 헌신했다.

랄프 윈터(Ralph Winter) 박사도 그런 관점에서 에드워즈를 평가했다. 그는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처럼 선교 개념을 ‘복음 전파’에서 ‘사회 참여와 의료, 교육 등 인간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킨 인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시대를 앞서간 선교적 신학자였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신학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였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에 의사와 약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은 당시에는 없었다. 질병에 맞서는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죽음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순교적 헌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책 구입 문의 213-292-8335



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투우만술,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구매, A/S 상담 환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자산 13만불 넘어도 메디칼 받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저는 롬비치에 살고 있는데 요 67세 입니다. 요즘 저소득 혜택 프로그램 메디칼 때문에 고민이 아주 큼니다. 저는 간경화에 당뇨가 심해서 먹는 약도 많고, 언제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디칼이 저에게는 집 보다 더 중요 합니다. 한달에 메디칼 없으면 약값만 해도 6천불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냅니까. 짐은 없어도 메디칼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재산에 상관 없이 그냥 인컴이 저소득이면 되서 지난 2년동안 저소득 메디칼을 받았는데 내년 부터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고 뉴스가 나왔잖습니까. 제가 소득은 적은데 은행에 돈이 좀 있습니다. 소셜 연금으로는 한달에 1158불이 나오지만 솔직히 그 돈으로 사는게 불가능합니다. 주식이나 5만불 정도 있고, 은행에 돈 있어도 된다고 해서 집을 2년 전에 팔아서 집 판 돈으로 작은 집을 사서 이사한 후에 남은 돈이 22만 불 정도가 은행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행에 있는 돈 22만불 가지고 약값이나 입원비로 쓰면 되지 뭐 그렇게 메디칼을 받으려고 노력하나 라고 욕할 지 모르지만, 메디칼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이 돈은 어뉴이티에 넣으면 메디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뉴이티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문선영 선생님 꼭 좀 도와주세요.

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부터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을 위한 건강 보험인 메디칼 혜택을 받는 대상 기준이 크게 변화

했지요.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기존에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긴 소득이 저소득 기준에만 들 어가면 모두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이제 자산 은행에 예금이라던지, 주식 보유 액, 주택, 차량 등등을 심사에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상글이시라면 재산이 13만달러를 넘으면 안되고요,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 재산이 19만 5천달러를 넘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4년 부터 도입되었던 자산규모나 채류신분에 상관 없이 소득만으로 메디칼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 자산 규모의 제한이 다시 시행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메디칼을 신청하는데 내가 가진 돈 전체가 자산으로 다 들어가

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현재 집을 팔고 다시 구입하신 거 주 주택 1채는 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선생님이 타시는 차량 1대도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뉴이티나 생명보험에 들어있는 자산도 제외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은행에 일단 22만불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식에 있는 돈 5만불이 뭐 더 자라거나 떨어지거나 하겠지만 일단 5만불로 계산하면 이것도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총 자산은 27만불이 됩니다. 선생님이 1인 가구일 때 13만불의 자산 기준에서 14만불이 초과가 되는데 이것도 주식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이야기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은행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안되고, 하지만 소셜 1158불로는 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 이렇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00NMONEYTALK@GMAIL.COM



서 은행에 있는 돈 22만불 중에 4%, 5%씩 꺼내 쓰신다고 해도 원금은 물론이고 돈은 조금씩 더 자라게 행에 있는 돈 때문에 메디칼 혜택을 못받으시는 경우는 피하실 수 있고요, 그 15만불 어뉴이티에서 매년 넣어서 4%씩 꺼내 쓰시면 일년에 6천불, 그래서 한달에 5백불씩이 되서 선생님의 소득은 천 6백 5십 8불 (\$1658) 보다 더어서 저소득 1,800불 소득 보다 낮아서 메디칼도 유지하고, 만약 이 어뉴이티에서 매년 5%씩을 꺼내 쓰신다고 해도 일년에 7천 5백에서 월 \$625불씩, 그래서 \$1783로 저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뉴이티에서는 평균 7~8% 이

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니, 4%, 5%씩 꺼내 쓰신다고 해도 원금은 물론이고 돈은 조금씩 더 자라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은행에 있는 자산의 일부를 어뉴이티로 옮겨서 4% 혹은 5%씩 꺼내 쓰시고 돈은 이자 받고 자라는 반면, 저 소득의 자산 한도액도 해결하고, \$1158이라는 적은 금액을 \$1800 선까지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어뉴이티 플랜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직접 전화주시면 어떻게 어뉴이티에 내 돈을 넣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문선영이었습니다.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미주 최초 시니어 미팅 이벤트
50대 60대 70대 젊은 청춘

로맨스그레이 호모미팅



젊음을 찾아드립니다.

50세 이상
싱글 시니어
ONLY



한국 최고의 결혼정보그룹 '선우' 와 미주조선일보가 함께합니다.

- ▶ 일시: **12월 21일 (일) 오후 2시부터(약 3시간)**
- ▶ 장소: 옥스포드팔래스 호텔(2층 다이너스티홀)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 대상: 50세 이상 싱글 남녀
- ▶ 참가 인원: 남녀 각 50명(총 100명)
- ▶ 참가비: \$150
- ▶ 참가문의: **(213)435-1113** | (주)선우



경/품/추/첨
한국 왕복 항공권
1매를 드립니다.
한국 ↔ 미국

당일 5~6명의 시니어 이성 만남이 이루어지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우 결혼정보 업체에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 됩니다.

주최 Since 1991 SUNOO Couple.net | (주)선우

후원 A&E 크리스천파운데이션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